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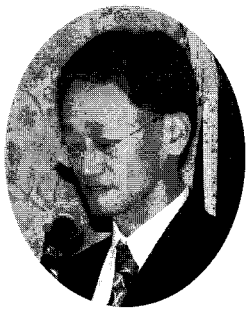
농약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농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돼야

홍보부



농산물 수입개방 및 수입물량 급증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농촌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산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수한 제품을 공급기 위해서는 불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농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민신문사에서는 농업전반에 걸친 불황극복을 위한 농업·농민·농산업계 모두를 아우르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육성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 지난 3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정부 및 농림부, 농협, 농산업계 모두가 참석하는 "2003농산업 포럼"을 개최, 성황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이날 발표된 분야별 발표과제 가운데 농약공업협회 이병만 회장이 발표한 '농약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편자자 주】.



막연한 불안감 여전, 과학적 결과 신뢰해야

포식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이를 보면 48.4%를 보인 1985년 이후

하락을 거듭한 결과 지난해에는 29.9%라는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수방지 및 농작업 경감화, 안정적 생산 도모, 품질향상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농약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무농약재배시 감수율을 보면 벼는 34%의 감수율을 나타냈으며 배추는 63.7%, 복숭아와 사과는 100%와 98.9%의 감수율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수확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a당 제조노동시간을 보면 1949년 50.56시간이 소요됐던 제조노동시간은 75년도에 8.4시간으로, 91년 들어서는 2.2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농약이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약은 반드시 위험하다는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정부의 사용량 감축 추진정책, 친환경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과거농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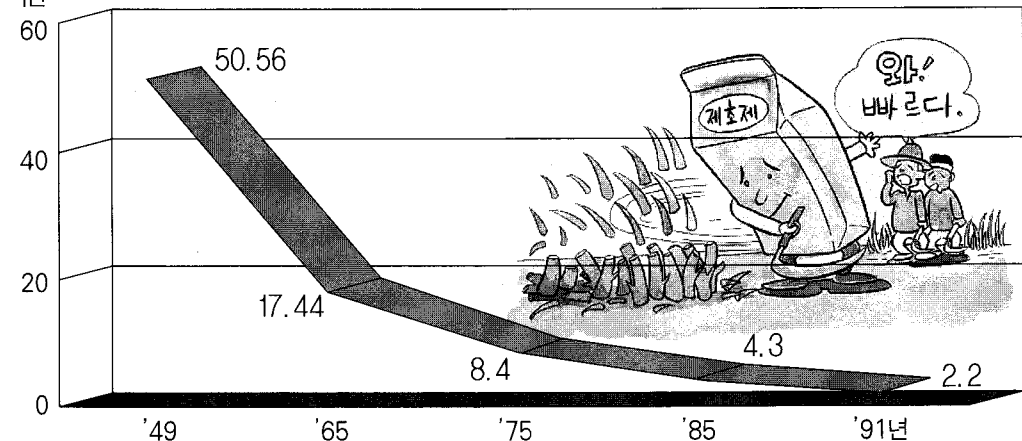
대한 선입견, 신물질 개발비 투자 지남, 왜곡된 정보의 여론형성, 농업전체에 확산된 위기감 등이 농약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 지적됐다.

우리농산물에 대한 농약오염도 의식조사 결과 를 보면 2000년도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1.2%, 2001년과 2002년에는 1.1%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농산물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52.4%를 보임으로써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농약 재배시 수량·금액 감수율

작 물	수 량	금 액
벼	27.5%	34.0%
밀	35.7	66.0
대 두	30.4	33.8
복숭아	100.0	100.0
배 추	63.4	63.7
사 과	97.0	98.9
오 이	60.7	59.5
토마토	39.1	40.0
감 자	31.4	41.6
가 지	20.9	21.5
옥수수	28.0	28.0

제조노동시간(10a) 추이



국내·외 농약시장, 하락세 뚜렷

먼저 세계농약시장을 보면 농가경제 악화와 유전자 변형작물재배 증가 등으로 1999년 1.8%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농약시장도 2만5천톤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출은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대비 국내 농약산업의 기술적 위치를 보면 생물농약에 있어 새로운 탐색은 동등수준으로, 미생물 대량배양 및 제제기술은 다소 부족

한 것으로 비교됐다. 반면 합성농약은 신규 화합물 창출 및 안전성 평가부문을 제외한 기존 원재개발, 농약활성 검진, 농약제제 기술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변화가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배면적이 정체 내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약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력화 방제로의 이동, 재배기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절감형 농약과 재배방법에 맞는 농

농약산업, 부가가치 높은 정밀화학·미래지향적 수출전략 산업

식량자급률 하락속 농약의 역할·필요성 증대, 막연한 선입견 버려야

약 개발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하고 형태와 외관을 중시하며 병해충 피해 없는 고품질농산물과 경제적인 농산물 생산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약업계는 독성이 적고 잔류 없는 안전한 농약, 효과는 높고 가격이 저렴한 농약개발이 요구되어지며 유익곤충 및 공기, 물, 토양 등 환경보전 욕구에 대해서는 저투입, 저독성, 환경친화형 농약개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약산업, 미래지향적 수출전략 산업

이 같은 농업 및 농약산업 여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신뢰받는 기업과 새로운 농약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신뢰받는 기업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안전사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농약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며 신속한 정보전달 및 품목을 특화하고 기업체질을 강



농업 변화가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I)

농업 변화			농약산업의 영향
재배면적	수도 채소 과수	감소예상 정체 정체	감소경향, 판매경쟁 심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생력화 방제로 이행 재배기술 변화, 기계화	노동절감형 농약개발 재배방법에 맞는 농약개발 기계화 대처	

농업 변화가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II)

농업 변화		농약산업의 영향
소비자욕구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형태·외관중시 - 병해충 피해 없는것 ○경제적인 농산물 생산	○독성이 적고 잔류가 없는 안전한 농약 요구 ○효과 높은 농약 요구 ○저렴한 농약 요구
환경보존 (유익곤충, 토양, 물, 공기)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이행 - 환경오염 억제, 경제적 방제추진	○저투입, 저독성,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 요구

화하는 등 고객 및 소비자를 지향하고 제조물책임법 및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 등 정보화 시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농약개발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높고 고효율이며 기능적인 농약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자 및 환경에 안전, 기존 약제의 유익성 개선, 경제적이며 제조가 용이한 농약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농약산업 발전과 사용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보면 첫째, 농약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 산업이며 미래 지향적 수출전략산업으로 진단하고 농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발표됐다.

둘째, 신물질 개발 투자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이다. 농약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 산업으로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1개의 신물질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독성시험비만도 100억~120억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국내 업계의 규모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어렵고 벽찬 실정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독성시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관련 연구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화학농약개발과 함께 친환경적인 미생물

농약 개발을 위해 미생물농약 등록기준을 보다 더 완화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토록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예를 들면 미생물농약 제조업 등록시 별도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시설로도 생산이 가능시에는 기존 시설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독성평가가 완료되어 이미 등록 판매 사용중인 농약은 일부 독성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이제 막 싹이트는 친환경적인 미생물농약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넷째,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중독정보센터에 대해 이젠 정부가 출연하여 그 설립을 검토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농약은 주성분 계통에 따라 치료방법이 상이하여 정보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중독치료를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섯째, 안전사용교육 홍보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줄 것과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농약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농산물의 상당부분이 병해충 잡초에 의하여 감소되고 있으므로 식량증산자재인 농약을 지원하여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대북한 농약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농약정보**